PP시트 불황탈출 "안간힘"

수출시장 확보 및 수조용시트 개발 한창 … 결과는 미지수

시트시장의 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PP시트 생산기업들이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 등 타개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HDPE, EVA시트와 아울러 동반침체 현상을 보였던 PP시트는 수조용시트 개발 및 수출시장 확보로 탈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수시트 전문기업인 골든포우는 기존 소수제품 대량생산 전략을 수정,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동남아, 중국지역 수출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 PP를 소재로 한 수조용시트를 95년 200톤 생산한데 이어 96년에는 500톤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PP재질을 사용한 수조용시트는 기존시트에 비해 내구성은 물론 양식장용에 필수적인 항균성이 우수하고 설치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수작업에서 국내최초로 자동용접기를 사용한 기계화로의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수조용 PP시트는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연근해 및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물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PP시트 개발에 따라 대체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치어양식의 경우 그물보다는 수조용 PP시트가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류어획량은 원양어업을 통하여 40%, 연근해어업 30%, 양식업 25%, 기타 5%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연근해어업이 양식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격은 턴키방식으로 주문생산 하는데다 각각의 규격, 설치방식에 의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출면에서도 물량은 많지 않으나 동남아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계속적인 노력이 뒤따를 경우 기대이상의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골든포우는 HDPE, EVA시트를 포함 95년 수출액이 80만달러에 그쳤으나 96년에는 100만달러를 목표로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트시장의 불황극복을 위한 생산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에 이르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저널 1996/2/5>